

창세기(1)

창세기 1 장 6 절까지 읽겠습니다.[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처음의 말씀 속에 마지막이 들었고 마지막 말씀 속에 처음을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책을 공부하며 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으나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아버지 메시지는 한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창조하실 때 물들의 표면을 거니시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니시므로 우리 영 안에 거니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역사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모세가 창조의 역사를 본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가 영어로 제너시스(Genesis)입니다. 그런데 세대를 표현하는 generation 도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염색체 인간의 모든 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것들이 들어 있는 염색체가 영어로 gene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라는 제너시스라는 말이 결국 전부 이렇게 관련되고 완전한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1 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이게 단어가 사실 10 개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하나님-께서-하늘-과-땅-을-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0 마디로 구분되어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10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7 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말씀 한 마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방세계의 체계는 십진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수 일곱입니다. 일곱이 지나면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6 천년이 지나면 일곱째가 천년왕국이 되고 그 다음부터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곱 체계입니다. 이방인은 항상 10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십, 백, 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첫 절의 말씀 속에서도 또한 신비한 일들이 들어있고, 창세기에는 하늘들과 땅과 인간, 죄, 구속, 인종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언약의 기원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특별히

창세기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카인이라든가 함이나 님롯이나 라반이나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바로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러한 모형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1 장 1 절을 먼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절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 결국 모든 무신론자들 그들의 생각과 주장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것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로마서 1 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외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 장 4 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신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대 목표는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사탄이 없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란 사람들까지도 사탄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 이런 말들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합니다. 이것을 올리게 되면 무엇인가 좀 지혜롭지 못하고 교양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결국 1 장 1 절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 ‘하나님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에 관해서는 시편 82 편 6 절에도 나오지요. 신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조그만 신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특히 요즘에 인도사람들이 믿는 힌두교는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다 헛된 것이다. 옛날 희랍에도 보면 사람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단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창조가 아니라 전부 진화가 되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크리스천까지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또 크리스천 선생님까지도 아무 소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모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스트라이크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월급이 조금 깎이고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뭐 엄청난 집회를 하곤 하는데, 인권에 대해서는 엄청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신권이 침해되는 이러한 들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 신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사들까지도 미혹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얼마나 깊숙이 마지막 때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걸 배울 때도 전혀 몰랐어요. 그게 뭔지, 이게 진화론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던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세상 신이 이 세상에 꼭 찼으면 그리스도인들도 공부하면서 그것이 뭔지 모를까 이렇게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보면 창조하실 때 하늘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먼저 창조하셨다. 요즘 보면 카톨릭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옛날 우리 한국 천도교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하늘님이라 그러합니다. 하늘님, 결국 뭐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 그러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늘로 여깁니다. 하늘. 옛날 공자도 순천자는 복을 받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는 하늘이라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물질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잘못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하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과,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말이다. 결국 킹덤은 킹덤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킹덤이고, 하나는 Heaven 의 킹덤인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에도 하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막연한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언제 창조하셨느냐. 태초에 창조하셨다. 태초. 태초라는 것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 시작한다, 이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옛날 카톨릭 주교가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창세기부터,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가 전부 그림을 그려봤더니 6 천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6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고인류학자들로부터 완전히 비웃음을 받습니다. 여기 '태초'는 아담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를 태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라고 했는데, 이 '태초'는 하나님의 기원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6 천년이지만 지구의 역사, 하늘과 땅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백 억년이 되었는지 어쩐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우리는 알면 되고, 사실 언제 창조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기원과 죄와 구속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삼차원의 세계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초로 알면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문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찔림을 받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읽기를 싫어하는 것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 장 1 절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요즘에 주장하는 학문이 다섯 개의 요소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어떤 movement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주체인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그 다음에 그 속에 운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자지로 구성되어 공부하는 것이 소위 과학인데 창세기에는 시간 개념이 태초로 되어 있고 공간은 하늘이고 그 다음에 운동은 창조한다는 activity 그런 운동이 들어가 있고 물질은 땅이 나와 있고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창세기 1 장 1 절이야말로 정확하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5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고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장 1 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럴 때, 과거의 어떤 하나님, 과거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은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렵게 되면 ‘하나님 맏소사’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연한 하나님은 믿고, 존재는 믿는데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어느 옛날 100 여 년 전에 살았던 신실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2000 년 전에 거니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존경했는데 아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보면 뭔가 좀 현실에 맞지 않고 “에이 이건 그런 거 아니겠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아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나?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 명을 먹이느냐? 아 이런 것은 우리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 아, 그 유명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고 이것이 기록되었을까?” 결국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구분되어 가지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있고 이런 착각에 빠져있던 말이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도할 때 예수님 하면 좋은데 이 말씀 전체가 믿어지지 않고 어딘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무언가 구해야지 물질이 생기는 것이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오느냐? 이것은 세상의 경제학이나 경영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게 요즘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 있는 행함으로써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와서 그것이 물질계를 지배함으로써 물질을 끌어들이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대로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오는 것처럼, 아니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벌려서 영접한다고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생명이 들어옵니까? 이 육신의 수명도 말이지요. 좋은 보약을 먹고 그래야만 노력을 해야만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느냐고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멕시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영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면 나 여기(자기 안)에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참 얼마나 순수한 겁니까.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 장 1 절 ‘창조하신다’, 말씀만 하시면 창조되는 이 모든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뿐 아니라 이 모든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전체 말씀이, 구약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복음서는 그렇고 나머지 신약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물론 요한계시록은 또 친히 인자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믿는 자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아의 아버지인 물러 같은 사람은 그 고아들이 수 백 명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돈도 구해야 되고 저기 가서 모금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즘에 보면 얼마나 모금을 많이 합니까. 기독교가 뭘 집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또 바자회를 하고, 아이들을 보면 또 선교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금하고 별 거 다 하는데, 사실은 뭍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맞은 손을 통해서 분명히 보내주시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없어지고 다른 세상적인 활동들이 비창조적인 역사들이 교회에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1 장 1 절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찬송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바로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요. 그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심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서 2 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신비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세 분이 한 분이신 그 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할 때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인 주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배운 원리대로 우리가 하려고 노력했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간구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옛날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때도 여러 공급자를 통해 공급을 받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던 주님, 이제는 세상에서 배운 그 창조가 아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모든 학문들을 배격하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를 우리가 먹는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동안에 창조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모든 성경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나타날 때 세상 신의 역사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많은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